

# 기업 사회공헌 2조...지역기업 맞춤형 활동 다양

### 기아차 광주공장 웰린지 콘서트, 금호아시아나 문화나눔 보해양조 페스티벌, 광주은행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운영

국내 기업들의 지난해 사회공헌 비용 지출액은 2조 7243억원에 달했다. 기업들의 사회공헌 관심 분야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많았고 10년 이상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최근 내놓은 '2018년 기업의 사회적 가치보고서'(사회공헌백서) 내용이다.

기업 사회공헌 2조원 시대,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한 기업의 공헌 활동도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광주·전남 기업들도 최근 사회공헌 트렌드인 ▲스타트업(Startup)과 ▲여성(Woman) ▲사회통합(Integration) ▲교육(Education) ▲소통(Communication) ▲힐링(Healing) 등 이른바 '스위치'(S.W.I.T.C.H)에 부합하는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지역 주요 기업들의 사회공헌활동을 들여다봤다.

◇기아차 광주공장=올해 사회공헌 키워드는 '지역사회통합'으로 요약된다. 노인·여성·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니즈(Needs)가 다양해지는 만큼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활동을 펼치는 데 공을 들

였다. 올해도 지난 3월 범죄피해자들을 위한 지원 활동을 시작으로 지난 4월 김장 나누기 활동까지 매월 사회공헌활동을 빠지지 않고 진행하는 것으로 입소문이 났다.

특히 '기아 웰린지 콘서트'는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대표적 사회공헌활동으로, 문화예술 꿈나무 육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과 청소년들의 꿈·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는 드림 토크콘서트로 나뉘어 추진되고 있다.

현대기아차그룹의 경우 양동 발산마을과 송정역 시장 등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삶의 온기를 전하고 발길이 끊겼던 도심 공간을 지역민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 만드는 데도 한몫을 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영재는 기르고 문화는 가꾸고'라는 사회공헌철학에 맞춰 올해도 교육 기부, 문화 나눔 활동에 집중해 왔다.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이 부족한 지역을 찾아 펼치는 '사랑의 금호아트홀' 프로그램과 저소득층에 문화 공연 기회를 제공하는 유·스퀘어 문화관을 통한 문화나눔 활동이 대표적이다.

금호고속 임직원들이 지난 2006년부터 매월 복지관을 찾아 봉사활동과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 배달·배식 활동 등을

펼치는 사회공헌과 '끝없는 모야 기부하기'는 회사의 대표적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했다.

◇보해양조='통합'이라는 키워드에 걸맞는 공헌활동을 펼쳐왔다. 기업 역량, 전문성과 연계하면서 임직원, 고객 등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양방향 소통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게 특징이다.

자사가 만든 '천년에' 소주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역인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사회 관공지를 디자인에 담아 내놓는가 하면, 판매수익금을 지역 인재 육성에 내놓고 '천년에 페스티벌' 같은 문화공연으로 지역사회에 활력을 모색하는 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앞세우 봉사단은 다양한 사회통합 활동을 12년째 실시하고 있다.

◇광주은행=취약 계층 교육과 중소기업 지원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다문화 가정을 위한 교육 공헌활동의 경우 지난 2015년 '희망이 꽃피는 공부방 1호'를 선정한 이후 지난달까지 모두 50호점을 선정하고 멘토링 역할을 하는 등 미래 인재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공헌활동의 경우 자유학기제와 4차 산업혁명에 맞춘 진로 탐색 등의 필요성이 반영되면서 기업의 신규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40.0%가 진행할 정도다.

광주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은 지역 은행의 전문성을 살린 공헌활동이라는 점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만 해도 지난 2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5억원을 출연하는가 하면,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 등과 협약을 맺고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특별보증을 지원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고 특별자금 대출을 마련, 시행하는 한편, 300억원을 내놓으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음식·숙박업에 대한 지원활동에도 동참했다.

◇삼성전자 광주사업장=지역의 대표적 행사에 삼성 제품을 후원하고 이웃돕기 성금을 내놓는 것 뿐 아니라 청년 창업지원과 취약계층 지원 등에 포커스를 맞춘 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다. 2013년부터 청소년들의 진로탐색을 도와주고 있는 '드림락서 퓨처메이커' 프로그램과 스마트 쿠킹 대회, 희망드림장학금 등은 인재양성 프로그램이다. 오는 10일부터 운영되는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 사회공헌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지면서 상당수 기업들의 일회성 봉사활동 위주의 공헌활동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114.35 (-17.58) ↓ 금리(국고채 3년) 1.91 (-0.01)
- ↓ 코스닥 708.63 (-0.83) ↓ 환율(USD) 1105.30 (-5.40)



### 광주은행, 범죄피해지원센터 2000만원 성금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지난 3일 오후 신양파크호텔 에머랄드 홀에서 열린 2018년 범죄피해지원센터 송년의 밤 행사에서 광주전남범죄피해지원센터에 성금 2000만원을 전달했다고 4일 밝혔다.

성금 전달식에는 송종욱 광주은행장과 배성범 광주지방경찰청 검사장, 이은열 광주전남범죄피해지원센터 이사장, 이상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광주은행이 전달한 성금은 광주전남 범죄피해지원센터를 통해 범죄 피해

로 인해 고통 받는 피해자들에게 생계비 및 의료비 지원, 심리 상담지원, 법률 지원, 피해자 보호 등 실질적인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이번에 전달된 성금이 범죄 피해로 고통 받는 우리 지역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한 위로를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을 펼침으로써 우리 지역에 진정한 나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2018 제3차 에너지밸리 기업투자 협약식'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20여개 투자기업·기관들이 협약을 맺은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한전, 에너지밸리 기업 투자유치 순항

25개 기업과 투자 협약식...목표 초과 달성

한국전력(대표이사 사장 김종갑)이 기업들과의 상호 협력을 통해 에너지밸리의 품질 경쟁력을 높인다.

한국전력은 4일 한전 본사에서 '2018년 제3차 에너지밸리 기업투자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용섭 광주시장, 김영록

전라남도 도지사, 강인규 나주시장, 드림라인(주), 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주), 한국전기산업진흥회 등 25개 기업·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한전은 이번 협약 체결로 투자 금액은 912억원, 고용창출 인원은 395명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금까지 한전이

에너지밸리에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기업의 수는 총 360개로 당초 금년도 목표인 300개를 크게 넘어서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이번엔 한국전기산업진흥회는 '에너지밸리 전기설비시험연구원'을 2022년까지 설립키로 했다.

나주혁신산업단지(7,960㎡ 규모) 사업비 203억원)로 에너지밸리 전기설비시험연구원도 출범하게 되면 한전의 에너지신기술연구소 및 고장 실험시험장과 전기연구원 분원이 상호 연계해 에너지밸리 투자기업들의 R&D, 예비시험, 인증시험, 현장

실증 등 제품개발의 모든 과정을 지원해 품질경쟁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전은 앞으로도 에너지산업의 모체(母體)가 되는 '앵커기업'과 '미래 유망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대기업의 공급사들을 에너지밸리로 모아 2020년까지 50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이다. 또한 한전이 보유한 기술, 전력 인프라, 빅데이터, 해외 네트워킹, 구매 분야의 핵심역량을 적극 활용해 에너지밸리 투자기업의 성장을 돕고 해외시장 진출도 지원한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 금호타이어 정상화 지역민 팔 걷었다

시민·광산구·금타 노조 금호타이어제품 사주기 운동

인을 제안한 바 있다.

행사기간 동안 행사장을 방문하면 최근 생산된 승용·SUV·승합·소형트럭 등 타이어를 공장도 가격에서 10~2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교체할 수 있다.

4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노사는 광산구와 공동으로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광산구민을 위한 금호타이어 특별한 판매 및 A/S 캠페인'을 연다.

이번 행사는 지역에 기반을 둔 금호타이어 경영정상화를 돕기 위한 것으로, 광주 광산구 노사민정협의회가 공동선언문을 내고 '금호타이어 제품 사주기 운동'을 펼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금호타이어 노조는 앞서 경영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광산구와 전국급속노조 산하 사업장을 대상으로 판촉캠페

금호타이어 노사는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 교육과 타이어 위치 교환, 차량 점검 등 서비스도 실시한다.

광산구도 지역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21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행사 안내 포스터를 붙이고 관련 단체에 공문을 발송하는 등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회사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캠페인을 추진하게 됐다"면서 "지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100년 신문 향한 정통지 **광주일보** 창사66주년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OO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6년무상A/S 정기점검

시공전 시공중 시공후

원룸건물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 · 디자인방수 · 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 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